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024 한국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재 한국예총 수석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구 인사드립니다.

2017년 한국음악협회 23·24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0년에 닥친, 코로나-19의 세계적 범람으로 인하여 음악 예술계도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음악협회는 어려운 코로나 3년 동안, 전국의 음악가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1백억 원(1천 명), 2021년 200억 원(2천 명), 2022년 80억 원(8백 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난 2023년에도 63억의 매출을 올리며, 건실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행사만 ‘제56회 서울음악제’, ‘한중일 동아시아음악제’, ‘한중 문화교류음악제’, ‘장애인국제음악제’, ‘대한민국작곡상’,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청와대 블루하우스콘서트’ 등 국제 규모의 정부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하게도 한국음악협회의 활동을 장황하게 말씀 올린 것은 문화예술경영은 사심 없는 냉철한 판단력과 성공적 예술경영 노하우 그리고 정부와의 교섭능력을 갖춘 리더가 있어야 만이 긴급수혈이 절실한 한국예총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한국예총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사심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국예총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이 존중받는 나라
이철구

FACO

후보자 프로필

이철구

현재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과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 조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음악인으로는 가장 명예로운 대한민국작곡상 최우수상(대상, 2007)을 수상했으며, 문체부 장관상, 한국음악상 대상, 한국예총 공로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악관현악곡 ‘하나님이 주신 한국의 사계’로 대한민국작곡상 최우수상(대상, 2007)을 수상했으며, 피아노 협주곡 ‘땅끝까지 이르러’, 피아노 협주곡 ‘아리랑’, 국악관현악곡 ‘왕관(CROWN)’, 6월 1일 국가기념일 주제곡 ‘의병의 날’, 기념가 ‘동학농민의 노래’, ‘한상의 노래’, ‘시편 합창곡’과 ‘예총찬가(김송배 작사)’ 등 다수의 작품을 작곡하였다.



FACO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AL ORGANIZATION OF KOREA

예술이 존중받는 나라

이철구 2



첫째, 예총회관 건물 매각을
원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한국예총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매년 50억 적자의 예총,
이제 바꾸겠습니다.

셋째, 130만 예총회원의 저력 통해
한국예총이 정부와 문화예술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총은 회관의 매각만이 예총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 예총 이성림 회장부터 전 하철경 회장
그리고 현 이범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예총 반환금 50억 3천 7백만 원이
문체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여,
이제 반환금 지체 시 바로 경매 절차에 집행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한국예총 자산의 30%인 약 390억이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매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금액이
약 400억 원 안팎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빠르고 시기적절한 매각만이 예총의 살길입니다.

저는 예총회관 건물 매각을 원점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한국예총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지금껏 한국예총의 운영은 예총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운영되어왔으며,
그 적자가 매년 약 5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예총의 여러 집행부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예총의 자산은 4분의 1만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예총은 이제 대출에 의지하여 운영하는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매년 열 개 이상의 국가적 행사와 개최하고 있으며,
총 연 매출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작은 계획이지만,
예를 들어 ‘대한민국국제음악제’를 ‘대한민국국제예술제’로,
‘한중일 동아시아음악제’를 ‘한중일 동아시아예술제’ 등으로 확대만 해도,
10개 회원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상생하는 예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30만 한국예총 회원여러분!
한국예총의 위상과 저력을 정부에게 보여 줍시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의 회원 수는 약 121만 3천 명입니다.
그러나 한국예총은 약 13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예술계를 향한 정부의 지원은
늘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정부와 온 국민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전 분야의 K-컬처가 세계 1위가 되기까지
문화예술인의 헌신적 예술혼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이**
한국예총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금 인식시켜서,
한국예총이 정부와 문화예술교섭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